

# 전국의 걷는 길 현황 및 홍보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성 용

걷는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나 왕도는 없다고 생각된다. 제주올레를 비롯한 많은 걷는 길들은 제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걷는 길은 19세기 유럽에서 다양한 걷는 길이 조성되었고, 20세기 말부터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 1. 전국적인 걷기 열풍

급격한 도시화와 빠른 경제성장은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용어였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은 편리해졌고 활동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성장을 우선시 하던 시대를 지나 최근에는 사람들의 삶의 질, 느림과 여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길이란 원래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에는 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러한 길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단순한 수단이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아닌 곳에 난 도로로 되면서부터 길이란 말도 생소해졌다. 최근 녹색교통에 대한 관심과 개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활동으로써의 걷기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 걷기의 열풍이 불고 있다. 걷는 길은 19세기 유럽에서 다양하게 조성된 이후에 20세기 말부터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유럽과 북미는 휴양지와 공원을 중심으로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조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걷기와 길이 합쳐진 ‘걷는 길’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는 것은 길의 공간적 질을 높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게 되어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된다. 즉 옛날에는 생계 및 사회활동의 수단이었던 걷기가 이제는 삶의 활력소와 재

충전의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느림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한다. 걷는 길에 대한 관심과 가치도 이러한 느림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걷는 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을 몰고 온 ‘제주올레’로 인해서 재조명되고 있다. 걷는 길은 ‘제주올레’를 계기로 각 지자체별로 조성되고 있다. 제주올레와 지리산의 둘레길 등 명칭도 가지가지이며 코스도 다양하다. 또한 걷는 길의 공통점은 새로운 고속도로와 같이 곧게 난 길이 아니라 옛날 시골의 마을 길이나 산길 같아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런 곳을 찾아서 연결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걷는 길들은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형을 따라 자연에 순응하면서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다. 이러한 걷는 길을 오르고 내리며 가다보면 자연을 느끼고 옛 추억을 상기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제주올레를 비롯한 걷는 길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트랜드이다.

## 2. 걷는 길 조성 현황

### ● 제주올레 현황

제주올레는 2007년 9월 1코스를 시작으로 2010년 9월에 17개 코스를 포함하여 총 22개 코스<sup>1)</sup>에 길이는 357km에 달한다. 제주올레는 차량을 이용한 관광에서 벗어나 제주의 해안과 자연을 걷는 체험을 통해 경쟁의 사회에서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삶의 여유와 건강까지 얻는 재충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제주올레는 2009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하는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10 한국관광의 별’ 관광매력률 부문에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2010.9)’ 연구에 의하면 제주올레를 찾는 탐방객이 2010년에 455천명에서 2015년에 1,720천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올레는 제주관광의 주요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국에서 제주올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현재 제주올레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여가활동,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 ● 지자체 중심의 걷는 길 조성 및 홍보 현황

걷는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나 왕도는 없다고 생각된다. 제주올레를 비롯한 많은 걷는 길들은 제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걷는 길은 19세기 유럽에서 다양하게 조성되었고, 20세기 말부터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다수의 유럽 도시들과 북미의 휴양지와 공원을 중심으로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조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올레를 선두로 걷는 길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 제주도의 둘레를 따라 만들어진 정규 코스 17개와 섬 및 중산간 비정규 코스 5개

〈표 1〉 국내의 걷는 길 조성 주요현황

	주체	걷는 길	주요 내용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보관광코스	서울의 주요명소를 서울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도보로 관광하는 프로그램
	경상북도	경북나드리 코스별관광	울진 삼이령길, 구만리 청보리밭 길, 영덕 블루로드 등
	경상남도	토영 이야 길 등	경남의 걷고 싶은 길은 지리산 둘레길을 비롯하여 남해바랫길, 통영 동파랑길, 거제 지심도 동백숲길, 김해 해반천과 가야의 거리 등 걷고 싶은 25곳의 정보를 제공
	전라북도	예향천리마실길	군산 구불길, 부안 마실길, 아름다운 순례길, 익산 둘레길, 고창 질마재길
	전라남도	걷는 길	오동도 산책길, 동산 종주길, 신비의 바닷길, 청산도 슬로길, 증도 모실길, 금오도 환상의 자전거 길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올레	오름 및 중산간도로, 바다 등 제주의 자연환경 특성을 느낄 수 있는 17개 코스의 걷는 길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미디어, 쇼셜네트워크 등의 발달로 말미암아 걷는길을 찾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걷는 길의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지자체에서 걷는 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걷는 길 이용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걷는 길을 만들고 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걷는 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남의 경우는 걷는 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QR(Quick Response) 코드를 이용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의 걷는 길에 대한 정보는 ‘투어서울(TourSeoul)’ 정보하에 도보관광코스를 비롯하여 시티투어 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폰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TourSeoul' section of the Seoul City Hall website. It featu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주변여행', '관광명소', '맛집', '숙박', '쇼핑', '문화행사', and 'e-관광인증서'. A sidebar on the left lists categories such as '추천여행', '도보관광코스', '도보관광코스 소개', and '도보관광코스 : 11월 지역 13개소'.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large image of a night view of Seoul with the text '2,000년 고도 서울을 걸으며 : 도보관광코스 소개 | 도보관광정책 | 클러리 | 헤聋시대기 | 여행후기'. Below this is another section titled '도보관광코스 소개' with a smaller image and text. On the right side, there's a '도보관광코스' section with a thumbnail image of a person walking, followed by sections for '서울시티부어버스' and '추천! 지하철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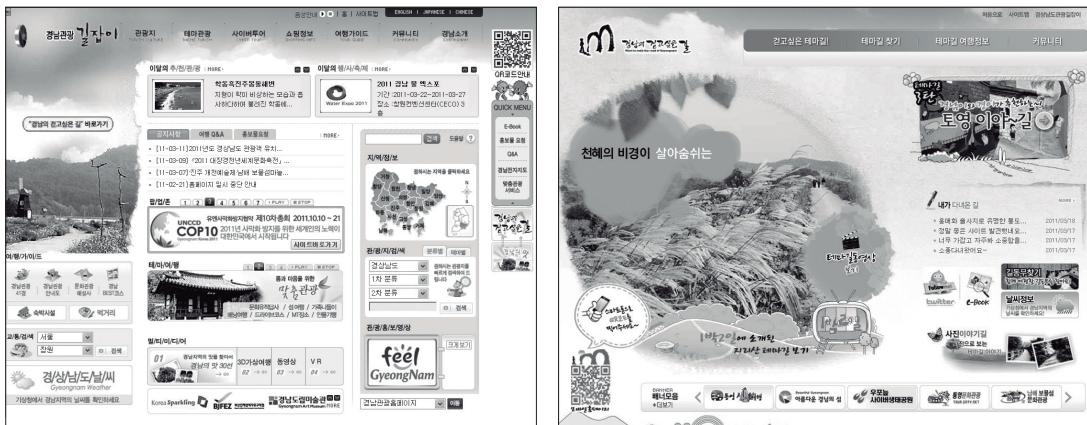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청 홈페이지 걷는 길 정보

경북도청의 홈페이지에는 ‘경북나드리’에 관광정보를 모아두었다. 그중에 여행만들기 하위 메뉴로 걷는 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청은 홈페이지 정보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QR코드도 같이 제공하여 모바일 정보도 제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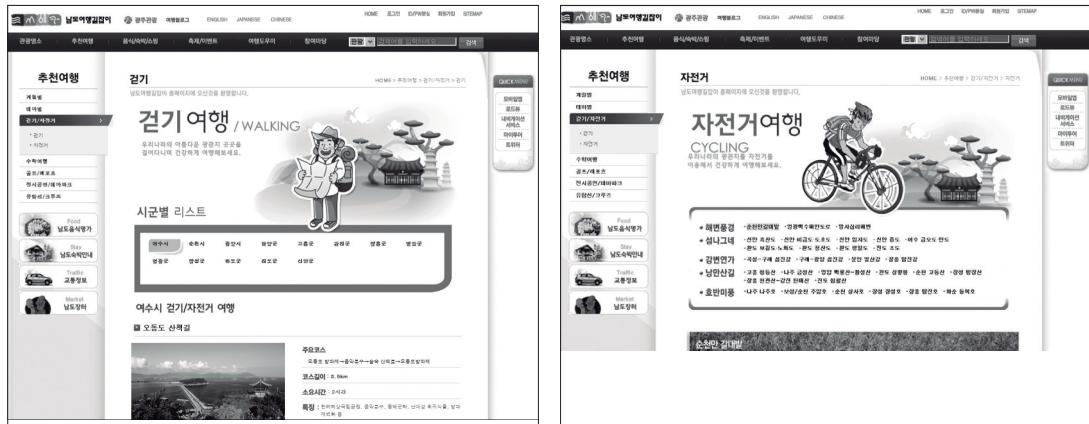
〈그림 2〉 경북도청 홈페이지 걷는 길 정보

경남의 경우에는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경남관광길잡이’에 ‘경남의 걷고싶은 길’ 배너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경남의 걷고싶은 길’ 내에는 시군의 걷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에는 모바일 정보 제공이 가능한 QR코드를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그림 3〉 경남도청 홈페이지 걷는 길 정보

전남도청의 경우에는 ‘남도여행길잡이’에서 걷기 여행 및 자전거여행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에는 시군별 걷기 여행정보 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와는 달리 자전거여행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정보제공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림 4〉 전남도청 홈페이지 걷는 길 및 자전거 길 정보

전북의 경우에는 도청홈페이지에 군산 구불길을 비롯하여 걷기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는 현재 모바일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림 5〉 전북도청 홈페이지 걷는 길 정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도청 홈페이지내 관광정보에 제주올레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스소개와 탐방안내 등 제주올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상에서 모바일 정보 제공은 별도로 없지만 상용화된 제주올레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걷는 길 정보

### 3. 홍보방법

걷는 길이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걷는 길들이 사람들이 편안히 찾고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친환경적인 코스의 개발이다.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걷는 길의 코스 조성시 인공적인 포장보다는 자연상태를 유지하거나 최대한 인공적 요소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포장이나 인위적인 시설로 인해서 자연적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걷는 길의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이다. 걷는 길의 열풍을 몰고 온 제주 올레도 인공적인 포장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아울러 노폭을 두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도한 노폭은 자연훼손으로 이어지고 걷는 길의 감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둘째, 지자체들의 과도한 경쟁의 지양과 걷는 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걷는 길에 대한 인기로 말미암아 휴일 등 여유시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지자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걷는 길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조용하고 한적했던 시골마을이 걷는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몰고 온 차량들로 인해서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일년내내 땀 흘려 수확을 기다리던 농작물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도 한다. 걷는 길에서는 길을 내준 사람이나 길을 걷는 사람 모두가 웃으며 서로를 반길 수 있으면 좋겠다.

셋째,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담보로 한 지속성 확보이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걷는 길들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 이야기거리 등을 포함하여, 잊어버렸던 전통을 길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다. 모방이 아닌 개성있고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은 현지 주민들의 도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걷는 길 등을 알리는 각 지자체의 홍보 방안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홈페이지에 걷는 길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온라인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선인터넷 환경에서도 이용가능토록 하고 있다. 향후에 유선이 아닌 무선형태의 정보제공 및 이용이 급증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유·무 안내정보시스템의 강화 및 연계가 필수적이다. ●